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비흡연 대학생의 주장행위에 관한 연구 -건강신념모형과 ASE model 적용을 중심으로-

김명수¹, 김윤희^{1*}

¹부경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Assertive Behavior Among Non-smoking College Students Under Secondhand Smoke Exposure

Myoung-Soo Kim¹ and Yun-Hee Kim^{1*}

¹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흡연 대학생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때 금연을 주장하는 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B광역시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일개 대학의 비흡연 대학생 246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비흡연 대학생의 간접흡연 노출시 금연을 주장하는 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남학생인 경우(OR 3.173, 95% CI 1.676-6.005), 가족 내 흡연자가 있는 경우(OR 1.679, 95% CI 1.056-2.983), 주장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높은 경우(OR 2.821, 95% CI 1.044-7.623), 주장행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OR 3.753, 95% CI 1.845-7.634), 주장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OR 4.140, 95% CI 2.159-7.941)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의 간접흡연 노출 시 금연에 대한 주장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장행위의 유익성과 사회적 영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assertive behavior among non-smoking college students under secondhand smoke exposure. Data were collected from 246 non-smoking college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B city from October to November, 2011 and analyz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factors related to assertive behavior were men(OR 3.173, 95% CI 1.676-6.005), with another smoker in household(OR 1.679, 95% CI 1.056-2.983), high level of perceived benefit(OR 2.821, 95% CI 1.044-7.623), high level of social influence(OR 3.753, 95% CI 1.845-7.634), high level of self efficacy(OR 4.140, 95% CI 2.159-7.941).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valuate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enhancing of assertive behavior of non-smoking college students regarding of perceived benefit, social influence and self efficacy.

Key Words : Secondhand smoke, Assertiveness, Health belief model, ASE model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으로 폐암 및 심혈관질환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비흡연자가 들이마시는 담배연기는 환경성 담배연기로 공식적으로

인간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간접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2]. 우리나라도 공중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1995년에 제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3].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성인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37% 정도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권 11호에 게재된 논문의 교신저자표기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교신저자정정 : 'Myoung-Soo Kim'을 'Yun-Hee Kim'으로 정정함.